

답 게 살 자.



학교장 / 김 영 석

사람이란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처지를 알고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답게 살기」를 강조한다.

“아 시아에 4마리의 용이 자라고 있는데 머지않아 이들이 승천하면 세계 경제의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는 서구 선진국들이 한 말인데 요사이 이 말이 달라졌다고 한다.

“4마리의 용 중 한마리는 지렁이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한국을 지렁이에 비유하여 조롱하고 있는 말이다. 우리가 80년대 말까지만해도 허리띠를 졸라 매고 새마을 운동의 기치 아래 땀흘려 일하는 근면한 민족 정신을 온 세계에 과시하였고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의 경제 발전상을 보고 배우겠다고 줄을 이어 찾아왔었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점정 고무신을 신고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한 두 사람 뿐이고 모두 짚신을 신고 다녔으며 양말이나 버선이 뚫어지면 으레 기워 신을 줄 알았다. 신발이 닳아 찢어지는 것도 흠이 아니었다. 물론 국민 1인당 GNP가 겨우 기백불에 불과했던 때라 보리고개를 꺾어야 하였으니 어렵게 살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끈기와 인내, 그리고 근면한 민족적 저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서울 올림픽을 거뜰히 치러 내었고 국민 소득은 계속 성장하여 드디어 5,000불선을 넘어서게 되었다. 남들은 이미 10,000불 20,000불 선을 넘기고도 연료비가 적게 들고 세금이 싼 소형 승용차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제 겨우 GNP가 5,000불 선인 나라에서 수익원을 호가하는 외제 승용차를 수입해서 타고 다니며 중·대형 자동차 타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어찌 보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몇 천만원 짜리 쇼파에 몇 백만원 하는 전등을 수입해서 호화 주택을 꾸미면서 부끄러움은 커녕 자랑

스럼없이 뽑내는 일부 부유층의 작태는 그만 두고라도 수입 개방으로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는 외제 상품이 불티나게 잘 팔리고 있는 현상은 과소비의 정도를 지나 자기 분수를 헤아리지 못하는 망국병의 근원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한국은 삼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고 조소하는 소리, 하늘로 올라갈 줄 알았더니 지렁이가 되어 땅에 떨어지게 됐다고 비꼬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고 본다. 이 나라 장래 주인이 될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신는 운동화를 예로 들어 보고자 한다. 「나이키」, 「리복」, 「아식스」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신는 신발이다.

이는 분명 우리 나라에서 만든 국산 신발이다. 그런데 위 상표는 외국에서 많은 돈(로얄티)을 주고 사오는 것이다. 왜 우리 국산품에다 외국 상표를 사다가 붙여야 잘 팔리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이 상표값은 계약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을 하고 막대한 돈을 또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나라 공장에서 우리 기술자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발에다 비싼 외국 상표값을 얹어서 판매하고있는 기현상을 우리 나라 젊은 이들은 무관심하게 넘겨 버리고 있는 것이다. 똑같은 신발에 외국 상표만 붙어 있으면 몇 배 비싼 값을 주고라도 사 신는 이 병을 한시 바빠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젊은 학생들부터 외국 상표붙은 신발 안사고 안신기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외국에 갖다주는 많은 돈을 가만히 앉아서 벌어들이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신발값은 저절로 싸지게 되는 것이다. 씹씹이 줄이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 되고 있는 요즘 가까운 우리 주변부터 살펴 보고 과소비 버릇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감으로써 지렁이가 되지 말고 용이 되어 승천하게 되기를 기대할 뿐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하루 30분 일 더하기 운동이 전개 되고 있어 더러운 일,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을 하기 싫어하고 기피하는 현상에 썩기를 막고 있는 일이다.

힘 안들이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고서는 경제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부동산 투기나 서비스업 종사 선호풍조가 없어지지 않는 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정말 이대로 주저앉고 말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4,000만이 하나가 되어 과소비 악습에서 벗어나느냐?의 갈림길에 서서 장차 이 나라의 어머니가 될 여러분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람이란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치지를 잘 알고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답게 살기」를 강조하는 것이다.

GNP 5,000불 국민답게 살아야지 20,000불이 넘는 나라 사람들의 흉내를 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학생답게, 여자답게 그리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위하여 겸손하게 또 부지런히 뛰어야 하는 한국 국민답게 살아야겠다. 文苑